

경북도, 전국 최초로 자동차부품제조원 비자 제도 도입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팔 건어
車부품기업 취업매칭 행사 진행
지역 정착 프로그램 윈스톱 지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자동차부품제조원(E7-3)비자제도를 통해 지역 주력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과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취업 매칭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의 자동차부품제조원(E7-3)비자시범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실행에 옮긴 사례로, 단순 외국인 인력 도입을 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정착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신설됐으며, 시도지사로부터 자동차부품기업 확인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인력-기업 취업 매칭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를 발급받은 비수도권 지역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8월 충북과 충남, 광주와 함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같은 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 인력은 경북도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 분야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한 인재들로, 입국과 동시에 도내 자동차부품 벨트 소재 기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사전에 기업별 수요 조사를 거쳐 맞춤형 매

칭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경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어온 자동차부품 기업에는 검증된 숙련 인력을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사회 정착 프로그램을 윈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 당일 외국인 인력과 기업 간 취업 매칭에 앞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 설명과 추진 경과 보고 ▲외국인 인력 기량 검증과 기술자 직무 교육 ▲기업 관계자 질의응답 등의 순

서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행사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동차부품제조원(E7-3) 비자가 단순한 정책 구상을 넘어 현장의 숨통을 트는 실질적인 수단임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자동차부품 산업은 경북 경제의 뿌리이자 핵심 동력인 만큼, 이번 성공적인 매칭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 호찌민 교류협력 확대

대구시는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인 호찌민 시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6일 응웬 반 드억(Nguyen Van Duoc) 호찌민시 인민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경제·과학기술·인적 교류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구시 대표단은 이날 면담에서 경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기업교류 활성화,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구시는 ICT, 첨단의료, 물 산업 등 대구의 강점을 중심으로 호찌민시와의 협력 분야를 구체화하고, 기업 간 교류·투자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구=김준한 기자

포항시

신규 공무원 56명 임용식 개최

포항시는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 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한 신규 공무원 56명을 대상으로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공무원들은 임용장을 수여받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 행복을 위해 성실히 공직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신규 공무원은 모두 56명으로, 직렬별로는 행정 24명, 세무 4명, 사회복지 3명, 공업 5명, 농업 2명, 녹지 2명, 해양수산 5명, 보건 1명, 의료기술 2명, 환경 1명, 시설 7명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울산시, 주택보급율 107.6% 기록

전국 평균대비 최대 6.7%p 높아 지역거주자 주택 공급여건 양호

울산의 주택 보급률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울산의 주택 보급률은 107.6%를 기록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연속 100%를 초과하며 6대 광역시 중 최고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4.6%p에서 최대 6.7%p 높은 수준으로, 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주택 보급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했으나 2020년 이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와 자재비·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건설 경기가 위축된

면, 최근 6년간 울산의 1인 세대가 연평균 5800세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울산은 전년 대비 주택 보급률이 1.0%p 줄었다.

현재 울산의 총 주택은 49만 7617호이며, 이 가운데 공동주택은 34만 739호로 전체 69%를 차지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62%, 다세대주택 5%, 연립주택 2% 순이다. 앞으로 주택 공급은 현재 추진하는 건설 사업의 활성화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건축·교통·경관·도시계획 심의를 통합해 주택 건설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지역 주택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합리적인 심의 기준 적용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영암군, 남풍리 시외버스터미널 매입

복합문화공간 활용 계획

농촌지역 소규모 시외버스터미널이 교통여건 변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 영암군이 터미널을 매입해 터미널 기능은 물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5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암읍 남풍리 시외버스터미널을 매입했다.

영암군은 매입한 시외버스터미널을 리모델링해 단순 교통시설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층은 버스터미널 기능과 함께 시니어카페, 신활력플러스 시설 등 중간지원조직을 배치하고, 2층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



영암 시외버스터미널

용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시외버스터미널은 영암의 관문이자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각광을 받았으나 지금은 쇠퇴해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반적인 리모델링과 공간 재배치를 통해 상가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하동군,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23.4억 달성

지난해 12.7억… 경남도 내 1위

하동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난해 12억 6800만원을 기록하며 제도 시행 3년 차 누적 모금액 23억 4000만원으로 경남도 내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해 모금액은 당초 목표 11억원을 넘어 115% 달성했으며 전년도 6억 6900만원과 비교하면 189% 증가한 수치다. 군은 누적 모금액 20억원을 돌파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하동군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2년 연속 수상으로 차별화된 제도 운영 역량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대상’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별천지 하동 브

랜드를 전국에 알렸다.

향우들의 꾸준한 기부도 성과에 기여했다. 김종완 진주향우회장이 500만원을 전달했고, 박선용 통영 청플란트치과 원장이 300만원, 김영목 마산향우회장이 200만원, 김옥찬 대한경제신문 지사장이 100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하동군과 사천시, 고성군 공무원 직원 간 상호 기부도 이뤄졌으며 지난 13일에는제밀양하동향우회가정기회의에서 100만원을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출향인과 모든 기부자들 덕분에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며 “군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모든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책임 있는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양군, ‘뽕뽕겨울축제’ 경쟁력 강화

영양군의 겨울을 대표하는 ‘영양 뽕겨울축제’가 회를 거듭할수록 내실을 더하며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명품 계절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양읍 현리 빙상장 일원에서 지난 9일 개막한 이번 축제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며, 겨울철 관광 비수기였던 영양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축제에는 천연 빙상장을 활용한 얼음낚시, 얼음썰매 타기, 얼음열차 등 겨울 고유의 놀이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어린이들에게는 신체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장을 제공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영양군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현장에는 안전 펜스 설치, 실시간 빙상장 상태 관리, 철저한 제설 작업 및 보험 가입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또한, 축제장 내 운영되는 다양한 먹거리 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영양의 따뜻한 인심이 담긴 음식을 즐기며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축제 프로그램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안전과 편의를 강화해, 본 축제를 경북을 대표하는 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겨울관광 콘텐츠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전북경진원

“경영전략 컨설팅 받으세요”

(제)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이 19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영 전반의 어려움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분야는 경영전략, 인사·노무, 세무·회계, 기술지원, 마케팅, 판로 개척 등 총 14개 분야로 구성됐다.

경진원은 기업별 애로사항을 분석해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1대1로 매칭, 단순 자문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북=김종일 기자 kji7219@